

영유아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현황과 과제

A Review on the Use and Needs of Child Care and Education

1. 서론

본고는 국가 통계를 산출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4년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결과의 일부이다. 동 조사는 전국 200개 조사구에서 12,000여 가구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전문조사원의 면접조사로 실시되었다. 훈련받은 전문조사원이 2004. 10. 20~12. 10 동안 표본 가구를 방문하여 가구사항을 조사하고 초등학교 이하 아동이 있는 경우 추가로 아동개별사항을 조사하였다. 조사는 조사 대상 11,980개 가구 중 10,423개 가구를 조사하여 조사 완료율 87.1%이고, 초등학교 이하 아동조사는 조사대상 총 6,692명 중 6,412명 조사를 완료하여 조사 완료율 95.8%를 기록하였다.¹⁾

본고는 이 중 영유아의 기관서비스 이용 및 욕구를 중심으로 현황과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먼저 보육시설, 유치원 등 육아지원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이용이유,



서 문 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1) 구체적인 표본추출, 조사방법, 조사내용 등은 서문희 외, 「2004년 전국보육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음.

시간, 비용, 만족도 등 현황을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앞으로의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 의사 결과를 토대로 보육·교육 중기 수요율을 추정하였으며, 이에 의거하여 중기적으로 지역별로 추가로 필요한 보육시설과 유치원 규모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 모 취업률 및 주 양육자

아동 모의 취업률은 아동연령이 높아지면서 취업률이 증가하는 정적 양상을 나타낸다. 최연소아동이 영아인 여성은 26.8%, 유아는 42.6%로 최연소아동이 영유아인 모의 취업은 35.1%이다(표 1 참조).

그러나 주된 양육자는 모가 84%이고, 부가 2.6%인데 아동 연령이나 모취업 여부와 거의 무관하다. 이는 기혼여성이 자녀양육의 어려움으로 취업이나 출산에 지장이 있음을 반영한다. 모의 23.0%는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취업 때문에 임신이나 자녀수 조절 경험이 있다는 경우도 약 15%로 조사되었다.

표 1. 아동 연령 구분별 모의 취업여부

(단위: %, 명)

구분	전체 아동 기준				최연소 아동 기준				전체
	취업	미취업	모부재/ 모름	(수)	취업	미취업	모부재/ 모름	(수)	
영유아	33.2	64.7	2.1	(2,962)	35.1	62.7	2.2	(2,288)	100.0
영아	25.8	73.8	0.5	(1,171)	26.8	72.9	0.3	(1,064)	100.0
유아	38.1	58.7	3.1	(1,791)	42.6	53.4	3.9	(1,164)	100.0
0세	20.4	79.6	-	(358)	20.2	79.8	-	(203)	100.0
1세	23.8	75.4	0.8	(391)	24.5	75.2	0.3	(176)	100.0
2세	32.2	67.3	0.5	(422)	35.9	63.5	0.6	(222)	100.0
3세	37.3	60.2	2.5	(442)	43.5	53.4	3.2	(202)	100.0
4세	35.3	61.1	3.6	(507)	40.1	54.7	5.2	(206)	100.0
5세	40.9	56.9	2.2	(492)	44.9	52.3	2.8	(156)	100.0
6세	39.4	56.0	4.6	(348)	43.1	52.8	4.1	(16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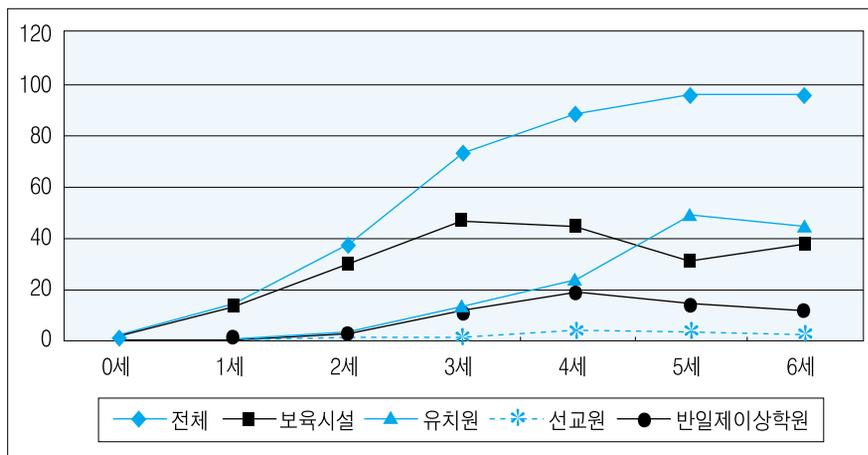
자료: 서문희 외, 『2004년 전국 보육 교육 이용 및 욕구 실태조사 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여성부, 2005.

3. 보육·교육서비스 이용

1) 보육·교육 서비스 이용률

영유아의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 기관은 전체 56.8%이고 기관별로는 보육시설 27.9%, 유치원 16.5%, 선교원 1.9%, 반일제 이상²⁾ 8.2%, 일반학원 8.7%로 조사되었다. 혈연은 전체 21.0%인데, 동거조부모와 비동거조부모의 비율이 높고, 비혈연은 소수에 불과하다. 상당수의 아동이 보육교육기관과 개인서비스를 중복이용하고 있다(표 2 참조).

그림 1. 아동 연령별 보육시설, 유치원, 선교원,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률



자료: <표 1>과 동일

[그림 1]은 미취학아동의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선교원 4개 기관 이용률을 나타낸다.

2) 미술학원 등에 유사 보육교육기관으로 운영되는 학원임.

표 2. 모 취업 여부별 영유아 양육 지원서비스 이용률¹⁾

(단위: %, 명)

구분	영아				유아				전체
	취업	미취업	모부재	전체	취업	미취업	모부재	전체	
기관	28.5	9.8	50.0	14.6	90.6	80.8	80.4	84.3	56.8
보육시설	25.8	6.0	50.0	11.2	50.4	31.6	37.3	38.9	27.9
유치원	0.3	0.1	-	0.2	23.2	29.6	29.4	27.2	16.5
선교원	0.7	0.2	-	0.3	3.2	2.8	2.0	2.9	8.3
반일제 이상 학원	0.3	0.3	-	0.3	12.2	14.4	11.8	13.4	1.9
일반 학원	0.3	0.1	-	0.2	15.1	13.8	11.8	14.3	8.7
기타	1.3	3.1	-	2.6	4.1	6.0	-	5.1	4.1
혈연	61.9	8.6	-	21.8	36.8	5.3	82.6	19.9	21.0
동거조부모	22.8	3.7	-	8.9	17.0	3.2	66.7	10.6	9.9
비동거조부모	34.6	3.8	-	11.7	16.7	1.5	8.0	7.5	9.2
친인척	7.0	1.6	-	2.0	3.8	0.7	11.7	2.1	2.4
비혈연	9.6	0.3	-	2.7	2.5	0.1	3.9	8.1	1.7
(수)	(302)	(864)	(2)	(1,171)	(682)	(1,053)	(51)	(1,792)	(2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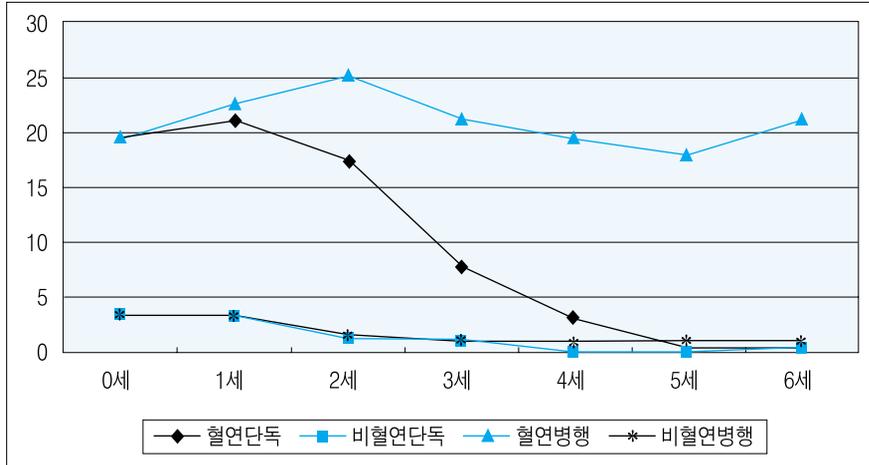
주: 1) 중복응답 결과임.
자료: <표 1>과 동일

모의 취업여부별 차이를 보면 취업모의 영아는 보육시설 25.8%를 포함하여 28.5%가 기관을 이용하고 혈연, 비혈연 등 개인양육지원 이용비율이 71.5%를 차지하고 있어서, 보육시설이 취업모 영아 보육에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유아의 경우는 취업모의 혈연으로부터의 지원은 상당수가 기관 이용과 함께 이용하는 중복 이용이지만(그림 2 참조), 36.8%로 미취업모 5.3%에 비하여 높다.

2) 이용 이유 및 중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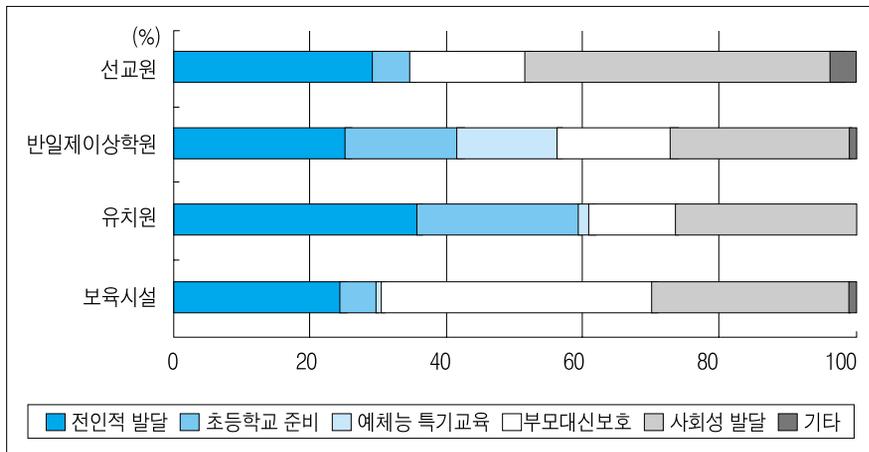
기관 이용 이유는 보육시설은 대리보호, 유치원은 초등학교 준비, 학원은 특기교육, 선교원은 사회성 발달을 지적한 비율이 높다. 이는 이들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이 상당부분 유사하지만 부모들의 선택시에는 보다 구체적인 기능상의 이유들이 반영되고 있음을 나타냈다(그림 3 참조).

그림 2. 기관병행 및 단독 개인양육지원 서비스 이용률 비교



자료: <표 1>과 동일

그림 3. 현재 이용 기관의 이용이유



자료: <표 1>과 동일

부모가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내용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차이가 있어서, 보육시설은 영양공급 및 식습관 지도가 가장 높고, 다음은 건강보호 및 질병예방과 치료, 교육 순인 반면에, 유치원의 역할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기본생활습관 교육이 가장 높고, 다음은 창의성 교육, 초등학교와의 연계교육의 순이다.

3) 보육·교육 기관서비스 이용 시간 등

1주일 중에 기관을 이용하는 일수는 주 6일 이용이 보육시설 34.3%, 유치원 9.5%, 학원 6.1%, 선교원 7.0%로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이용일수가 많은데, 평일 하루 중 이용하는 이용시간도 보육시설이 가장 길다. <표 3>은 영유아의 기관 등 원 및 하원 시각으로 산출한 기관 이용시간 분포인데 전체적으로 6시간 이하가 47.7%이고, 평균은 6시간 42분이다(표 3 참조).

기관별로 보면 보육시설이 평균 7시간 20분으로 가장 길고 유치원이 6시간 미만으로 가장 짧다. 유치원 이용아동 중 8시간을 넘기는 아동은 6.7%로 보육시설 34.3%와 비교된다. 그런데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경우에 아동연령 및 부모 취업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많다. 특히 취업모의 0세아는 하루 중 10시간 이상을 보육시설에서 보내고 있고, 연령이 많아지면서 이용시간이 감소한다.

표 3. 아동구분별 기관 이용 시간

(단위: %, 명)

보육시간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선교원	전체
6시간까지	33.7	66.2	54.5	62.5	47.7
6~8시간까지	30.8	27.0	29.9	23.2	29.2
8~10시간까지	27.0	6.5	13.5	10.7	18.3
10시간 그 이상	7.3	0.2	2.0	3.6	4.8
계(수)	100.0(821)	100.0(486)	100.0(244)	100.0(56)	100.0(1,607)
평균이용시간	7시간 20분	5시간 51분	6시간 20분	6시간 14분	6시간 42분
표준편차	1시간 56분	1시간 15분	1시간 34분	1시간 27분	1시간 48분
F	92.6**				

주: ** p < .01.

자료: <표 1>과 동일

4) 기관서비스 이용 비용

영유아가 기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부담하는 비용 전체 평균은 171,000원이다. 이는 조사대상자가 응답한 소득대비 비율은 8.34%이다. 매월 정기적으로 내는 비용은 135,000원이고 36,000원은 추가로 내는 비용으로 조사되었다. 기관별로 총 비용은 보육시설 164,000원, 유치원 173,800원, 반일제 이상 학원 193,300원, 선교

원 141,900원으로 학원이 가장 많고 선교원이 비교적 저렴하다.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선교원이 가구소득대비 비율은 높아서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은 가구소득 수준과 대체로 비례한다(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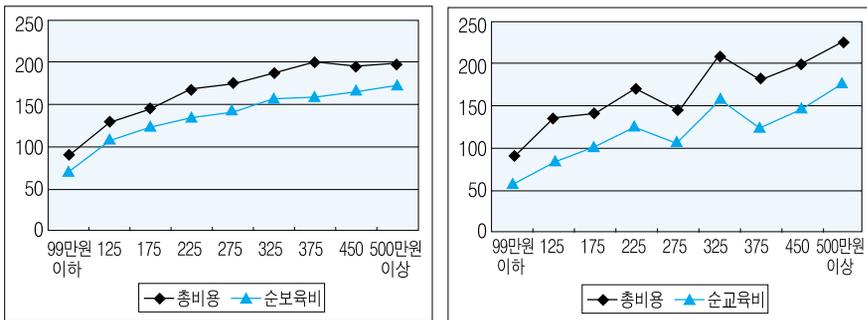
표 4. 아동 연령별 기관별 월평균 총보육·교육비

(단위: 천원, 명)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전체	가구소득 대비비율
보육시설 (수)	311.0 (2)	200.0 (27)	187.8 (101)	170.7 (180)	165.9 (226)	155.0 (187)	135.0 (92)	164.7 (818)	8.33
유치원 (수)	-	-	195.2 (3)	215.4 (33)	202.5 (192)	167.3 (180)	158.1 (178)	173.8 (487)	7.73
반일제 이상 학원 (수)	-	-	164.6 (4)	172.2 (25)	194.7 (86)	192.7 (80)	204.7 (50)	193.2 (244)	9.42
선교원 (수)	-	111.8 (2)	127.1 (2)	161.7 (7)	125.4 (17)	146.3 (17)	156.3 (12)	141.9 (57)	9.20

주: 0세아는 비용을 4만원 내는 하루 중 2시간 이용 아동을 제외하였음.
 자료: <표 1>과 동일

그림 4. 소득수준별 보육시설과 유치원 총비용 및 순보육·교육비



자료: <표 1>과 동일

이러한 비용에 대하여 매우 부담 12.7%, 부담 45.4%로 응답하여서 58.1%가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관별로는 부담된다는 비율은 학원 이용이 가장 높고, 유치원 이용이 가장 낮다(표 5 참조). 정부에서 저소득층 중심으로 보육시설과 유치원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육아지원서비스에 따르는 비용부담 때문에 기

관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비율도 낮지 않다. 본 조사 결과 보육시설에 안 보내는 이유로 영아의 경우는 8.7%, 유아는 21.2%가 비용부담 때문으로 응답하였고, 유치원 미이용자는 30.8%가 비용부담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또한 정부가 해야 할 우선적인 육아지원정책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도 양육비 지원이 44.8%로 절대적으로 많았다.

표 5. 보육·교육비용 부담 인식

(단위: %, 명)

구분	매우 부담	부담	적당	부담안됨	완전면제	전체	(수)
전체	12.7	45.4	31.1	7.6	3.1	100.0	(1,609)
보육시설	13.5	45.6	29.4	7.3	4.3	100.0	(610)
유치원	11.5	43.6	30.9	11.3	2.7	100.0	(397)
학원	14.3	50.6	33.5	1.2	0.4	100.0	(181)
선교원	5.3	35.1	39.1	8.8	1.8	100.0	(33)

자료: <표 1>과 동일

5) 만족도 및 선호도

본 조사 결과를 보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용자의 만족정도는 대체로 높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부정적 측면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4개 기관 이용 만족 정도는 4점 척도로 환산하여 보면 전체적인 만족수준은 2.86점인데 유치원이 2.91점으로 가장 높고 학원이 2.77점으로 가장 낮지만 기관간의 차이는 크지 않다(표 6 참조). 그러나 항목별로는 시설설비 등 환경이나 비용보다는 교사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이 높다. 즉, 원장과 교사 만족도는 3점을 넘는 반면에 비용, 부모교육 및 상담, 부모참여, 시설설비 만족도는 낮은 수준이다. 이는 기관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도 시설설비와 비용이 각각 14.1%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주변 환경으로 12.0%로 나타나서 낮은 만족도를 반영하였다.

표 6. 4점 평균 만족도 기관별 비교

(단위: 점, 명)

공급	전체	보육시설	유치원	반일제 이상 학원	선교원
점수평균	2.86	2.86	2.91	2.77	2.90

주: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 * $p < .05$, ** $p < .01$
 자료: <표 1>과 동일

이용자 만족도는 비교적 높지만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질적 수준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낮고, 이용자보다는 일반인이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보육시설의 경우 이용자는 서비스 수준이 높다는 비율이 41.3%이지만 일반인은 17.4%이다. 유치원의 질적 수준에 대해서도 이용자는 49.2%가 높다고 응답한 반면에 일반인은 19.8%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7 참조). 이처럼 이용자보다는 일반인들이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의 각종 사고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표 7. 보육시설과 유치원 서비스 수준에 대한 의견

(단위: %, 가구)

구분	매우 높다	높은 편이다	낮은 편이다	매우 낮다	모르겠다	계
보육시설 이용자	0.4	41.3	47.1	4.4	6.0	100.0
일반인	0.3	17.4	28.5	5.1	48.7	100.0
유치원 이용자	1.3	49.2	38.0	3.3	8.2	100.0
일반인	0.5	19.8	26.5	4.6	48.5	100.0

자료: <표 1>과 동일

한편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주요 이유로는 영아는 비용, 유아는 프로그램으로 조사되었고, 유치원 미이용은 비용을 지적한 비율이 높고 프로그램을 지적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 역시 부모 비용부담 감소와 더불어 서비스 수준 제고가 주요 정책과제임을 나타내고 있다.

4. 영유아 보육·교육 수요

1) 추가 이용 희망

〈표 8〉은 앞으로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가를 조사한 결과인데, 영유아 중 19.9%는 보육시설만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고, 34.1%는 유치원만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37.6%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고, 7.5%는 보육시설과 유치원 중 아무 곳도 안 보내겠다고 응답하였다.³⁾

이들 앞으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겠다는 경우 56~57%가 국공립을 선호하고 있다. 현재 국공립기관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이 보육시설 11%, 유치원 22%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국·공립보육시설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비용이 저렴하여서가 54.1%로 다수를 차지하고 신뢰가 가서는 43.1%이다. 국·공립 유치원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비용이 저렴하여서가 63.0%로 보육시설 54.1%보다 높고 신뢰가 가서는 33.2%로 보육시설 43.1% 보다 낮다. 이는 유치원 교육비가 보육시설 보육료보다 높음을 반영하는 결과라 하겠다.

표 8. 미취학아동의 연령별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 계획

(단위: %, 명)

구분	보육시설만 보냄	유치원만 보냄	보육시설과 유치원 모두 보냄	아무 곳도 안 보냄	잘 모름	계	(수)
전체	19.9	34.1	37.6	7.5	0.9	100.0	(2,963)
0세	8.1	20.2	68.3	0.6	2.8	100.0	(357)
1세	11.3	22.3	64.6	0.5	1.3	100.0	(390)
2세	15.2	24.4	58.1	1.7	0.7	100.0	(422)
3세	19.3	31.7	44.7	4.1	0.2	100.0	(441)
4세	25.4	40.2	25.4	8.7	0.4	100.0	(508)
5세	30.4	45.3	8.3	15.4	0.6	100.0	(494)
6세	25.3	51.7	1.7	21.0	0.3	100.0	(348)

자료: 〈표 1〉과 동일

3) 현재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계속 이용한다면 이용한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분류함.

2) 보육교육 수요

본 연구에서는 이용의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이용하여⁴⁾ 증기 보육 및 교육 수요율을 추정하였다. 보육수요율은 영아 32.4%, 유아 45.1%로 전체 39.4%로 추정되었고, 이중 수요 충족률은 영아 46.6%, 유아 85.4%로 전체 72.3%이다. 따라서 2004년 인구기준으로 추가 수요 규모는 영아 25만, 유아 15만이다. 2009년이면 이 수요는 영아 94%, 유아 77%로 감소한다.

한편 유아교육 수요율은 50.0%이고, 유아 교육수요 충족률은 62.2%이다. 2004년 인구기준으로 추가 유아교육 수요 규모는 38만 3천명이며, 2009년이면 77% 수준인 29만 5천명으로 감소한다. 유아의 경우 보육과 교육을 합하면 총 수요율은 95%가 된다(표 9 참조).

표 9. 연령별 증기 추가 보육보육 수요 추계

(단위: 명, %)

구분	유아보육				유아교육			
	이용률(A)	추가희망 이용률(B)	수요율 (C=A+B)	충족률 (A/C*100)	이용률(D)	추가희망 이용률(E)	수요율 (F=D+E)	충족률 (D/E*100)
영아								
0세아	2.3	7.8	10.1	29.8				
1세아	12.4	13.0	25.4	48.8				
2세아	28.5	29.2	57.7	49.4				
소계	15.1	(17.3)	32.4	46.6				
유아								
3세아	45.7	19.1	64.8	70.5	13.5	23.2	36.7	36.8
4세아	42.9	5.8	48.7	88.1	25.7	29.3	55.0	46.7
5세아	28.9	0.6	29.5	98.0	50.1	10.5	60.6	82.7
소계	38.5	(6.6)	45.1	85.4	31.1	18.9	50.0	62.2
전체	28.5	(10.9)	39.4	72.3	31.1	18.9	50.0	62.2

주: 인구수는 통계청, 『장래인구 특별추계』, 2005 중 2004년 인구수임.

자료: <표 1>과 동일

4)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을 보내겠다는 경우 현재 이용자를 제외하고 언제쯤 이용할 생각인가를 질문하고, 그 결과 1년 이내에 보내겠다는 비율을 기준으로 증기 수요를 산출하였음.

3) 지역별 자녀 양육지원시설 추가 배치 규모 추정

현재 일반적으로 보육교육 공급은 수요에 비하여 충분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연령별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고에서는 추정된 중기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보육·교육 수요율과 해당지역 현재 보육교육 공급률의 차이를 산출하고, 그 차이를 추가공급이 필요한 지역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만 2009년 시·군·구 추정인구를 곱하여 추가 보육수요 규모를 산출하였다.

여기서 적용한 기본 원칙은 첫째는 2009년 보육 및 교육의 공급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추정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수요율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2009년 추정 공급률이 이번 실태조사에서 추정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수요율을 초과하는 지역은 추가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둘째로 실태조사결과에 기초하여 영아는 개인양육지원 등 시설 외 방법 선호도를 감안하여 영아보육 추가수요 중 25%를 시설 외 보육으로 충족시키고, 이외는 모두 시설보육으로 충족시킨다고 가정하였다. 영아보육시설 규모는 아동 30명, 유아보육시설은 아동 55명, 유치원은 아동 60명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 10. 2009년 보육시설 및 유치원 추가 설치 시·군·구 수 및 기관수 총괄

(단위: 개)

구분	보육시설 (0~2세)			보육시설 (3~5세)			유치원 (3~5세)			보육시설/유치원 동시 고려(3~5세)		
	시· 군·구	총기관	국공립	시· 군·구	총시설	국공립	시· 군·구	총기관	국공립	시· 군·구	총기관	국공립
전체	188	3,034	1,517	97	734	367	80	1,204	602	48	926	463
대도시	51	700	400	27	260	130	38	634	317	30	586	293
중소도시	61	1,560	780	20	310	155	39	570	285	15	330	165
읍면	85	528	264	50	164	82	3	-	-	4	10	5

자료: 서문희 외, 『2004년 전국 보육 교육 실태조사 총괄 보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여성부, 2005.

산출결과는, 보육시설만 고려하면 전국 234개 시·군·구 중 188개 시·군·구에 정원 30명 영아보육시설 3,035개, 97개 시·군·구에 정원 55명 유아보육시설 734개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고, 유치원만 별도로 고려하면 정원 60명의 1,204개를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아의 경우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기능이 유사

하여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들을 동시에 고려하면 48개 시·군·구에 926개의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을 설치하면 된다. 이들 기관 중 50%는 자연 증가되도록 하고 50%는 국공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가정에서 국공립시설 설치 규모를 제시하였다(표 10 참조).

5. 정책적 제언

앞에서 설명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조사 결과 자녀 양육은 여성의 몫으로, 여성이 양육과 함께 취업을 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취업모를 위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높은 보육시설이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영유아 보호자의 과반수 이상이 교육·보육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고, 부모의 경제적 수준이 자녀의 보육기회에 차별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보육받을 권리가 부모의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보육교육 비용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아진다. 아울러 개인에 의한 양육지원도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저렴한 비용으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공보육의 당위성을 뒷받침하였다.

셋째, 보육·교육서비스 이용률⁵⁾은 연령별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서, 육아지원 기회의 확대도 연령별로 차별성 있게 접근하여야 한다. 충족되지 않은 보육수요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추가 설치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보육·교육기관의 추가 설치시 선교원, 학원 등 다른 유사 기관의 존재를 고려하여야 하고, 국공립 설치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0세아 부모는 보육시설 이외에 다양한 양육지원방식을 필요로 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가정보육교사 제도의 검토가 요구되고, 취업모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보육의 질적 수준 개선이나 환경 향상 정책이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시설 설비나 환경 등 하드웨어 부분에 보다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영유아 보육·교육에 있어서 프로그램이 근접성과 더불어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내므로 질

5) 조사 시점인 9월 30일 연령 기준임.

높은 프로그램이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고, 영유아 보육기관에서의 서비스 내용이 보다 질적으로 제고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보육료를 연령별로 산출한 결과 1세 미만아와 만 1세아의 보육료는 많은 차이가 나고, 이용시간 분포도 아동별로 차이가 많다. 그러므로 보호자를 중심으로 본다면 연령 및 이용시간에 따라 보육료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섯째, 보육시설과 유치원의 차별성이 없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나, 본 조사 결과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동질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용이유, 이용시간, 내용, 이용 아동 등에서 차별성이 분명하게 나타났다. 이는 이들 두 기관은 기능적 일원화가 행정적 일원화보다 우선시되어야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외에도 반일제 이상 학원, 선교원이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반일제 이상 학원은 예체능 등 특기교육, 선교원은 사회성발달을 이용 이유로 든 비율이 높다. 따라서 반일제 이상 학원과 선교원을 육아지원 정책 대상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도 주요 정책과제가 된다. 